

오피니언

월/요/광/장

정준모



2006년 월드컵 열기는 온 지구를 달구어 놓은 듯 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개최국에, 4강 진출이라는 위업을 달성한 경험에 있는 대한민국의 월드컵 열기는 더욱 대단한 것이었다. 4년 전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더욱 세련된 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열광했다.

이 귀국해서 소속팀에 들어가 열린 K-리그에 관중이 없었다. 그래서 구단은 부랴부랴 100여명의 공짜 관객을 모셔다 앉혀놓고 경기를 치루고, 월드컵 내내 축구 외에 프로그램은 편성하지 않아 축구일색이

열광의 썰물, 어디 축구뿐이라

었던 TV는 한 곳도 중계하는 곳이 없어 운동장에서 뛰는 축구선수들과 구단,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되어야 했다. 이런 무대전, 무관심인 한국축구의 실상이고 보면 이번 월드컵의 본선 진출만도 기적이라 해야 할 것이다. 보여주는 사람이나 없는 운동장에서 달밤에 체조하듯 선수들은 운동을 했고 그렇게 쌓은 실력으로 백주대낮에 으리으리한 구장에 수십만의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축구광들 앞에서 달밤에 쌓은 축구실력을 선보이려니 주눅이 들 수밖에.

필자가 장황하게 축구이야기를 늘어놓아 이미 식상한 독자들도 계시겠지만 이

런 일은 축구 뿐 만의 일이 아니다. 사실 축구는 그대도 좀 나온 편이다. 레슬링이나 하키 같은 비 인기 종목은 정말로 고달프다. 관객은 커녕 선수조차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올림픽에 나가 가장 많이 수상하는, 또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다. 그들의 형리극 정신과 악바리 근성이 그나마 세계무대에서 한국을 알리는 중요 동인이었다.

이 는 문화예술계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에게 한민족의 창의적 자부심을 갖도록

해준 고 백남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세계적이라는 수식어를 이를 앞에 붙이고 있는 한국의 문화예술인들의 성공과 영예의 뒤안길에는 개인의 희생과 가족의 희생이 전부이다. 관객 없는 축구선수를 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들을 갈고 닦은 결과이다.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니 분에 넘치는, 그래서 때로는 실감이 안 나는 관심을 보인다. 이가 이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돌아서 버리는 그런 인심과 관심 속에서 무엇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무릇 운동장의 선수와 극장의 가수, 전시장의 화가들은 관객과 관중의 관심과 박수가 가장 큰 힘

이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힘들지 않은 이런 관심과 박수를 보낸 적이 있었던가. 아니면 맨땅에서도 잘만 하던 축구선수들이 잔디구장에서 축구하도록 해 주었더니 투정만 부린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진심어린 관심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잘 나가는 차에 손대놓고 밀어 주었다고 할 일이 아니라 큰 짐을 싣고 언덕을 만나 힘들어 하는 리어카를 밀어주어야 보람도 있을 것 아닌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자. 초대권 바라지 않고 내 돈으로 입장권 사서 축구장이나 공연장, 전시관을 찾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찾는 사람이 없다면 관 한 돈 들여 지은 공연장은 원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그러다 보니 점차 그 장소에 맞는 공연을 하려해도 이미 장비나 설비가 변경되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사례가 허다하다. 일본에 없다가 오페라 극장을 지어놓고 얼마나 으시댔던가. 그런데 지금가보니 오페라는 일년에 한두 편뿐, 외국수입 뮤지컬 공연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차라리 처음부터 뮤지컬 전용극장이라고 했으면 월드컵 출전선수들이 동네축구선수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 외에 어떤 것이 있을까. <미술비평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남북 장관급 회담, 남측 단호한 태도 보여야

북한 미사일 사태가 UN 안보리에 회부되면서 지구촌의 가장 긴박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제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채택은 불발에 그치겠지만 그들도 나머지 13개 이사국 모두가 찬성하는 제제안을 두고 마냥 북한편만을 들 수도 없는 노릇이다. 북한으로서는 제제안이 채택되면 더욱 심한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미국과 일본의 직접적 군사위협에 맞서야 한다. 어느 경우건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는 셈이다.

이 긴박한 시기에 남북은 내일부터 부산에서 나흘 일정으로 장관급 회담을 속개한다. 북측이 미사일 발사 전에 제의한 군사회담(장성급 회담)은 거부해놓고, 막상 미사일을 쏘아버린 뒤에야 평소 대북지원 논의창구로 쓰이던 장관급 회담을 수락하느냐는 비판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회담장에 북한 당국자들을 나오게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본다. 전쟁중에도 대화는 하는 법이다.

세계의 눈이 쏠린 가운데 북한 대표단은 예의 '자주권' '정상적인 군사훈련' 운운하며 남측의 목인을 유도하려 들것이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남측이 북한을 향해 미사일 협박외교를 강하게 비난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미 정부는 북측의 관심사항인 비료 10만t 추가 지원과 쌀 차관 50만t 제공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달 6일 열차시험운행을 조건으로 체결한 경공업·지하철 협력약속도 일단 중지하는게 순서다. 미사일 발사로 인한 지금같은 긴장국면에서 대북지원에 대해 '약속은 약속'이라는 태도를 취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남측이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미사일 사태 발생 직후부터 한국정부가 모호하고 느긋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받게 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푸는 길이자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한미 FTA 서울협상, 국익을 극대화하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10일부터 닷새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2차 협상은 전조전 격이었던 1차 협상과 달리 농업과 위생·검역·섬유 등 양측의 분야별·쟁점별 이견을 조율하게 된다. FTA의 성과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고비인 셈이다.

서울협상을 앞두고 반대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높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농민·시민단체들은 협상 첫날 회의장 앞 '시국선언'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 도심 일대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잇달아 열 계획이다. 경제학자 171명과 농업경제학자 45명도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중에는 참여정부 핵심인사와 정책 자문단에서 활동했던 학자들도 여럿 포함돼 있다. 조순 전 경제부총리와 정운찬 서울대 총장도 한미 FTA는 시기상조라며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의 발로이거나 일부 단체의 편측 걸기 정도로 반대 여론을 폄하하고 있다.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겠다'며 6개 부처 장관 명의의 답답한 발표가 고작이다.

물론 반대 여론에 일일이 귀 기울이면서 양국간 첨예한 쟁점 협상에 나설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경제 전문가들조차 졸속 협상을 경고하고 나선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을 상대로 우리 국익을 지켜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개방통행 시 FTA 반대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반대 시위를 평화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과격한 폭력시위는 우리의 협상전략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대외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전이다. 찬성도 반대도 국익 극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無等鼓

한밤중 도로의 양쪽에 두 사람이 각자 자신의 차를 전속력으로 돌며 상대방 차의 정면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한다. 그대로 가면 충돌해 둘 다 죽는다. 이성이 동원된 합리적인 해법은 분명하다. 먼저 핸들을 꺾고 충돌을 피해야 한다. 그런데 핸들을 먼저 꺾을 경우 목숨은 부지할 지 모르지만 겁쟁이로 불리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명예를 선택하면 승자로 남지만 목숨을 버려야 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핸들을 꺾으면 겁쟁이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바로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으로 유행했던 '치킨 게임'(chicken game)이다. 젊은이의 우상이었던 제임스 딘과 나탈리 우드 주연의 '이유없는 반항'의 자동차 게임 장면이 바로 치킨 게임의 전형적 모습이다.

치킨 게임은 이후 국제정치학에서 사용되는 게임이론의 하나로 발전했다.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 모두 몰락할 수 밖에 없다는 극단적 상황을

황은 국제 정치에서도 다반사로 벌어진다. 치킨 게임은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 사이의 극심한 군비경쟁을 꼬집는 용어로 처음 차용된 뒤 광범위하게 인용됐다.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이라는 상징적인 날을 선택해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를 바라 보는 세계는 북한이 또 하나의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권문세채, 금융제재, 미국과의 대화 단절, 경제난에 몰린 북한이 미사일이라는 극단적 카드로 버림질 전술을 구사한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의도가 성공할 수도 있다. 긴장을 최고조로 몰아가야 할

파구가 생긴다는 북한식 게임 방식이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다. 1998년 1차 대포동 위기 이후 북미간 대화기류가 대표적인 예다. 문제는 항상 긴장의 한복판이 한반도라는 사실이다. 한민족 전체의 운명이 치킨 게임의 항배에 좌우된다는 사실이 두렵다.

/오주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치킨 게임



독자마당

탈세자 욕하기전, 현금결제시 할인 요구의식 부터 바꾸자

10여년동안 예식장에 근무하면서 과거와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결제 수단인 것 같다.

불과 3년전만 해도 예식비용 결제는 대부분 현금으로 했지만 카드사용 금액에 대해 소비자 소득 공제액이 늘어나면서 카드 사용회수도 늘었고 계산을 요구할 때에도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문제는 고객 대부분이 이같은 질문에 "현금으로 하면 얼마나 할인해주나요?"라고 되묻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어느 곳에서는 현금으로 하면 10%할인해주던데요"라는 말도 덧붙인다. 고객들조차 "어차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 나가고, 매출에 잡히고, 아님니까?"라며 은근히 현금 결제에 따른 할인을

요구한다. 어쩌다가 계산할 때 "현금으로 했다 해서 할인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신용카드 결제하는 것도 환영합니다"라고 말을 했다가는 "아가씨, 서비스에 감사하면서 너무 용서받아야 간간한 것 아니야! 다음에는 못 오겠네"라는 말을 듣는다. 아무리 친절하게 하고 고객에 편하게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도 모두 무시된다. 단지 계산할 때 할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매스컴에 보도된 탈세업자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좋다. 하지만 고객들도 은근히 업자들에게 이같은 일을 더 부추기는 건 아닌지하는 생각도 든다. 탈세 사업자를 욕하는 것 만큼 고객 의식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김은선·광주시 북구 오치동

디지털사진 인화로, 주인마음 이라는 태도 불쾌

급하게 증명사진이 필요해 최근 시내 YMCA 인근 디지털 사진 현상소를 찾았다. 디지털 사진 현상소는 파일화돼 있는 사진을 크기에 따라 한 장당 300~1천원 가량 받고 종이 사진으로 뽑아주는 곳이다. 디지털 카메라가 아무리 대중화돼 있다 해도 종이 사진이 필요한 탓에 시내에도 여러 곳의 현상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특별히 신경써 찍어야 하는 사진이 아니어서 직접 찍은 사진을 편집한 뒤 증명사진 여러 장이 담긴 5x7 크기 사진 한 장만 뽑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현상소에서는 원래 가격의 10배인 5천원을 요구했다. 이유는 1억원이 넘는

비싼 기계를 들여 '그런 식으로는 장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특별한 설명 없이 '5천원이 아까우면 탄 가게에 가보라'는 식이었다. 한마디로 증명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현상소에서 직접 사진을 찍은 뒤 제대로 가격(6~8장에 1만원 가량)을 치르거나 직접 가져왔다면 원래 사진 현상 가격의 10배를 달라는 것이었다. 실랑이 끝에 그곳에서는 사진을 얻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가게 어느 곳에도 손님이 직접 가져온 증명사진에 대한 요금은 전혀 있지 않았다. 기계가 비싼 것은 이해하지만 소비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듯한 주인의 태도에 한동안 마음이 좋지 않았다.

▲인터넷 독자 '뽕뽕이'

공공장소에서 핸드폰무음 에티켓 지켜야

얼마전 지하철을 탔는데 옆자리에서 즐기고 있던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의 가방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벨소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 울렸지만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3~4살된 아이가 남학생을 흔들며 "내동생 깨어나면 물어요"라고 했다. 자신의 엄마가 품에 안고 재우던 동생이 깨어나 울 것

을 걱정할 것. 지하철은 공공 장소다. 공공 장소에서 휴대폰을 벨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에티켓 모드(진동 모드)'로 바꾸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울리는 벨소리에 너무 무감각해진 게 아닌가. 통신 최강국이라든 휴대 폰 예절 또한 갖춰야 될 것 같다.

▲유지호·광주시 동구 수기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기고



최백순

우리나라 극장은 기존 경영을 탈피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과감한 시설투자 및 개·보수로 쾌적하고 안락한 문화공간을 제공해 왔다.

또 단관시대를 벗어나 첨단 멀티플렉스로 탈바꿈 하면서 한국영화 산업 발전의 든든한 기반을 이루여 왔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체적인 관객 감소 추세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 극장 간의 과도한 경쟁, 그 밖에 여러 가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위기와 막막뜨리게 됐다.

그 중 하나가 이동통신사 극장 요금 할인제이다.

유치를 위하여 극장 측의 부담금을 더욱 늘릴 가망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할인카드의 사용이 늘면서 서비스적용 극장을 이동사 측에서 임의로 결정, 현재 가장 많은 관객을 점용하고 있는 극장을 중심으로 할인 서비스를 적용함에 따라 극장 간의 경쟁력 격차를 한 층 더 벌리고 있는 형국이다.

요즘 할인이 곧바로 관객 유치와 연결되는 상황에서 제휴서비스를 적용받지 못한 극장들은 관객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로 치닫고 있다.

이 뿐만아니라 극장이 할인 요금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부담하는데도 불구

이동통신사 극장요금할인 협의 결렬 이유

"극장에서 제값 주고 영화를 관람하면 바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각종 이동사의 각종 할인정책을 일컫는 것이다.

실제 이동사 회원카드 제시시 극장 요금의 최대 30%이상을 할인 해 왔다. 광주시의 경우 영화관람객의 40%가 이동사 카드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보도도 접했다.

하지만 이러한 할인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재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이동통신사들이 고객 서비스를 위해 시행된 만큼, 할인금액 전액을 이동통신사에서 부담하였다.

극장과 이동통신사간의 상호 도움이 되는 제도처럼 시작되었지만 할인정책이 자리를 잡고 소구력이 강해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할인금액을 극장 측으로 전가하기 시작했다.

향후 이동사들이 경쟁적 할인서비스

하고 이동사는 고객의 포인트에서는 전액 차감함으로써 극장과 고객에게 모두 피해를 주고 있다.

극장요금 할인정책은 일시적인 한국영화 시장 확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극장 경영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이는 전체 한국영화 시장의 장기적 측면을 고려할 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극장협회는 ▲이동사 요금 할인제도를 원하는 극장과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할 것 ▲할인 금액을 1천원으로 낮추는 등 할인율을 자사 능력에 맞출 것 ▲극장 측에 할인요금을 부담시키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극장협회 상무)

방학철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한 대우받지 않게 감독 강화를

방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들이 많다.

고등학생 대부분이 기회가 주어진다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하며, 절반 가까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이유도 10년 전 대비 마련이나 어려운 집안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성친구 선물, 휴대전화 요금, 갖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등으로 바뀌는 추세다.

이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학교 교육

의 연장선으로 이뤄지는 체험 학습으로 봐야 한다.

또 청소년들이 악랄한 업주들에 의해 체불을 당하거나 부당하게 임금을 적게 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고 경찰, 자치단체와 함께 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불명당한 계약조건 아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수정·광주시 관산구 요기동